

수장절을 지키라

출 34:18-35

2021년 10월 20일(수)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태양력으로는 봄입니다.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입니다.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급히 빠져 나오던 일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과 무교절이 끝나는 21일을 절기 안식일로 정해졌습니다.

절기 안식일인 15일 다음 날, 곧 안식 후 첫 날 1월 16일은 맨 처음 익은 보리 이삭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보리의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 날, 곧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제단에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보리의 초실절로부터 7주(49일)가 지나면 칠칠절입니다.

유대력으로는 3월 6일입니다. 태양력으로는 초여름 경입니다.

이날은 '오순절'이요, 밀의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이기에,

초실절이라고 할 때는 밀의 첫 이삭을 바치는 맥추절을 의미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칠칠절(오순절, 맥추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신약시대에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날입니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후 성막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팔 일 동안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태양력으로는 늦가을 10월 말에서 11월 무렵입니다.

이날은 초막절이요,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은 올리브와 포도의 수확물을 저장고에 저장한 후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수장절일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날이 되면 예수님이 알곡은 거둬 가시고 쭉정이는 버리실 겁니다.

오늘날 교회력으로 하면,

유월절은 부활주일이고, 칠칠절은 성령강림주일이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칠칠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장절에 임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마지막 추수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추수 때를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2.

27-35절은 모세의 용모가 변한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게 될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 사람이 떡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생활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시내산에서 그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40일 낮과 밤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사단으로부터 ‘이 돌들로 떡 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떡 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3.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29절, 30절, 35절 세 번이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 얼굴에 난 광채는, 은혜의 광채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 은혜의 광채가 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얼굴의 광채가 났다면,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용모 전체가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 얼굴의 광채는 예수님의 광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세의 광채는 반사체라면, 예수님의 광채는 발광체입니다.

반사체는 빛을 반사하는 것이라면,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그 얼굴에 은혜의 빛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빛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빛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빛을 세상 속에 비추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모시고 우리 삶에 세상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4.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

수장절을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됩시다.

그날 알곡은 거둬들이지만 쭉정이는 버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수장절에,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떡과 물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됩시다.

둘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모신 자로,

은혜를 받아서 내 삶에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의 빛을 비추이는 자들이 됩시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이인지 주님은 알아보실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거두시는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됩시다.